

##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관련 워크숍

지구단위계획 철폐 마당  
서울건축사회 주장

서울시가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이 건설억제 정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월 28일(수) 서울시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관련 워크숍에서 서울시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의 강력한 정책비난이 이어져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건축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계획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과 저층건물 밀집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주민제안 형식으로 공동주택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제도다. 이와 관련, 서울건축사회는 지난 2월 26일 긴급 간사회를 열고, 최근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경제위기 상황속의 건축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에 항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건축사회 회원 1백여 명은 서울시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가해 「비겁한 서울시 건설정책」 「지구단위계획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어깨띠를 두르고 침묵시위를 펼치는 한편, 서울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 시 관

### 결의문

지난 2000년 7월에 서울시는 용적률 강화를 통하여 건설억제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습니다. 이미 '나홀로 초고층억제', 상업지역의 1,000% 용적률을 800%, 600%로 낮추는 바람에 상업건축역시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서울시의 80%를 차지하는 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지금은 아예 '건설금지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네동네마다의 건축을 죽이면 '완벽한 건설억제'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면에서 지금이 과연 어떤 때입니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핑계로 강행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 방침은 첫째, '지구단위계획' 틀 속에 들어오면 용적률 250%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250%로는 수익성 때문에 어떤 건설도 포기해야 할 판인데도, 이 '지구단위계획'은 절차상, 언론, 방송사의 논설, 해설위원, 판검사들 변호사, 시민단체, 의회위원, 인근주민의 심의를 받게되어 250%는커녕 200%도 찾기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서울시장님, 구청장님, 공무원님들은 이 지구단위계획 덕분에 '규제' 한다는 비난도 면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도 목마른 주민들에게 마를 수 있지, 공익과 공공을 위한다며 도로를 내놔라, 공원을 내놔라, 학교용지를 내놔라 할 수 있지, 살기 좋은 서울시를 꾸민다는 명분 얻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비겁합니까.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공무원들은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서울시는 비겁합니다. 건축인들이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몽니도 갖추지 못한 최약자라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굵실굵실 따라만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볼 때, 시민단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언론사 높은 분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판검사, 변호사들 역시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까. 어떤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웃주민들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더구나 도시학을 공부한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가 매뉴얼만 나눠주면 각 구청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 복잡한 도시를 꾸릴 수 있습니까. 매뉴얼로 지역에 따라 도시관리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화를 막는 것이므로 두루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각 구청에는 도시학을 열심히 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있다해도 그 매뉴얼의 취지에 모든 심의위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동조하겠습니까.

어떻든, 이 모든 것들은 건축관련법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언제 건축관련법이 도시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굴토심의, 구조 및 소방안전심의, 어느 심의가 도시를 무시했겠습니까.

건설산업을 살리려면, 그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려면 첫째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십시오. 둘째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제로 위장하지 마시고,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수립할 때까지 건축규제를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나타난 이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건축관련법에 나온 각종 항목을 심의위원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본다는 것 외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셋째 시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시기가 안 좋은 정책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패입니다.

우리 건축인들은 국가경제의 진정한 기틀은 건설산업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런 위급한 국가경제는 관심도 없이 '탈 없이 보내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비겁한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비겁한 서울시장을 규탄합니다. 솔직히 주민제안이 없다면 어느 구청장이 주거지역의 세분화를 통하여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선거가 내년 6월인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겁한 서울시의 10대 건설정책을 엄선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폭로함과 동시에 앞으로 건설관련단체들, 경제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이 결의문을 건의서로 제출합니다.

2001. 2. 28.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 일동

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결의문에서 회원들은 가뜰이나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용적률 강화 정책으로 인해 서울의 건축이 다 죽어가다시피 하는 마당에 서울시가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까지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80%를 차지하는 주거지역에 대해 아예 '건설금지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현실을 무시한 서울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건축사회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워크숍 행사장에서 펼친 침묵시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건설관련단체, 경제단체들과의 지속적 연계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워크숍 주요내용〉

- ▷구역설정기준: 대상지 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연결한 내부구역
- ▷도로조성기준: 도로폐지시 기존 도로의 폭원보다 계획구역과 접한 도로의 폭원이 좁을 경우 도로폐지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공원녹지확보기준: 공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린이 공원 설치면적(최소 1,500제곱미터 이상)면적이 확보되도록 한다.
- ▷공동개발계획기준
  - 개발허용: 검토구역내 평균가구규모 1.5배 이내인 경우
  - 제한적허용: 검토구역내 평균가구규모 1.5배에서 3배까지인 경우
  - 원칙적불허: 검토구역내 평균가구규모 3배 이상인 경우
- ▷도시경관계획기준
  - 원경과 중경 경관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구역전체를 개략적인 매스모델 또는 합성사진으로 제출한다.
  - 예시1: 인접대지경계 5층(15미터) = 3.7미터 이격  
10층(28미터) = 7미터 이격
  - 예시2: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

사선제한완화규정 차등화로 폭이 좁은 도로변의 지나친 고층화 방지  
▷향후 추진계획: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7월경부터 시행예정

### 건축사시험 응시요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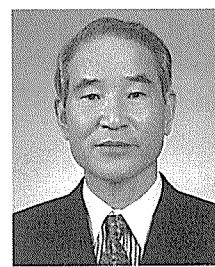
정부, 건축사법개정법률안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사법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제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나 학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개정안은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취득한 자는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일정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건축사

예비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산정일을 예비시험 합격일에서 응시자격취득일로 변경하는 등 경력요건을 완화해 예비시험 합격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및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 국민대 건축대학 출범

국내최초, 초대학장에 서상우교수



서상우 학장

국민대학교 건축학과가 올해부터 국내 최초로 건축대학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인증된 교육프로그램 기준에 의한 5년제 정규교육을 수행하게 됐다. 국민대 건축학과는 1974년 공학부에서 교육을 시작하여 조형대학 편제에서 26년의 역사를 이루어 왔으나, 국제적 추세로 건축대학 5년제를 운영하게 돼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앞으로 타 대학의 시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학장에는 서상우교수가 선출됐다.

## 2001 스틸하우스 설계 및 시공기술교육

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 주관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에서는 스틸하우스 공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수 숏 드로잉(Shop Drawing) 및 접합상세를 고려한 구조설계 기술습득 작성기법 등 스틸하우스 설계 및 시공 기술의 관리자 교육을 건축사와 시공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RIST강구조연구소(기홍소재)에서 일반과정(3일)과 전문과정(2일)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일반과정은 건축사와 시공기술사를 대상으로 스틸하우스일반, 구조설계, 주거성능, 시공기술 등을 교육하며, 전문과정은 일반과정이 수자와 스틸하우스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구조설계 요령집을 이용한 구조설계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

문의: 전화 02-559-3585,

팩스 02-559-3588,

홈페이지 [www.steelhouse.or.kr](http://www.steelhouse.or.kr)

▷교육일정(분기별 1회 실시)

-일반과정(3일)

1/4분기: 3월 19일~3월 21일

3/4분기: 9월 17일~9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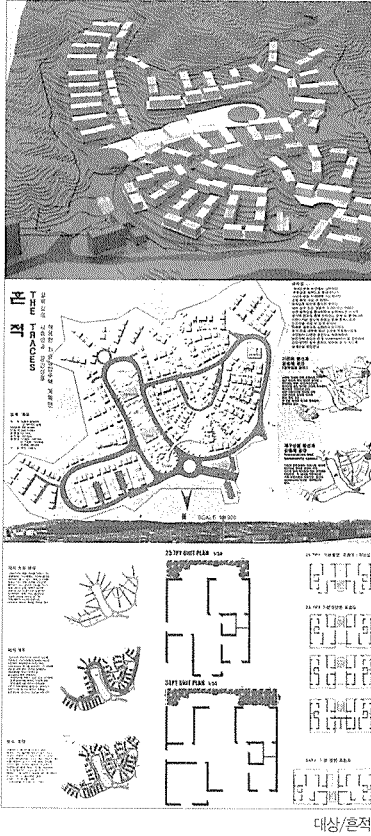
-전문과정(2일)

2/4분기: 6월 21일~6월 22일

4/4분기: 11월 22일~11월 23일

## 제2회 대학생공동주택 설계공모전

대상에 흔적(김철희,이봉현,이준화/홍익대학교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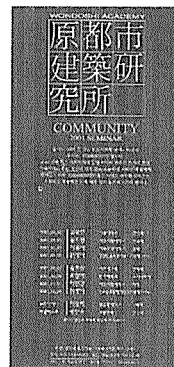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제2회 대학생공동주택 공모전 심사결과가 지난 2월 8일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김철희·이봉현·이준화(홍익대학교학원)가 공동 출품한 「흔적(The Trace)」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이효석·김보미(창원대)의 「The horns of a dilemma」와 정진우·곽서연·장대정(중앙대)의 「달과 6펜스」가 각각 선정됐다. 또 장려상 3점과 입선작 5점을 포함 총 1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학생공동주택 설계공모전은 새천년의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패기있는 젊은이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이며, 커

뮤니티공간이 확보된 미래형 주거단지 계획과 향후 확산될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주택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진행됐다. 총 119작품이 접수된 이번 행사의 심사는 김성홍(서울시립대), 조대회(경희대), 박영기(연세대), 신용재(부경대), 손세관(중앙대), 유난형(꾸메건축), 최두호(토문건축), 이기범(도시건축), 최광수(범한건축), 심관중(무영건축), 배경동(서울시), 오준엽(도개공)씨가 맡았다. 심사총평에 따르면 주어진 대지조건이 까다로워 참가자들이 대지의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당선작들에서도 보행공간의 체계가 미흡하게 나타난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 원도시건축, 2001년 공개세미나

4월 12일부터



올 해로 3회째를 맞는 원도시건축 공개세미나의 2001년 일정이 발표됐다. 올해 주제는 커뮤니티(Community)로 사회학, 인류학, 철학, 건축학 등 각 학문의 장르별로 관계석학들과 함께 커뮤니티의 개념이 현재 어떠한 구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작동하는 지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4월 12일부터 시작하며, 매회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원도시건

축 지하1층 홀에서 개최된다. 문의: 02-543-4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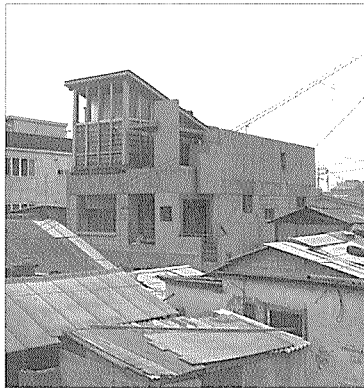
▷세미나일정

- 4월 12일: 김광현(서울대)/건축학
- 5월 3일: 송도영(서울시립대)/인류학
- 6월 7일: 이봉재(서울산업대)/철학
- 7월 5일: 종합(김광현, 송도영, 이봉재, 이상해, 박민수)
- 9월 6일: 승효상(이로재)/건축학
- 10월 4일: 조명래(단국대)/도시사회학
- 11월 1일: 이진경(서울시립대)/철학
- 12월 6일: 종합(승효상, 조명래, 이진경, 이상해, 박민수)

### 제4회 크리아어워드 발표

이일훈작 '기차길옆 공부방' 선정

제4회 크리아어워드 수상작으로 '기차길옆 공부방' (이일훈/후리건축연구소)이 선정됐다. 총 50인의 심사인단 투표 가운데서 28%를 확보한 '기차길옆 공부방'은 '지역적 맥락을 존중한 점이 돋보였다.', '신축건물임에도 기존의 주변건물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조화롭다.', '열악한 주변환경속에서 소박하지만 강하게 꽃피운 건축언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꼬여드는 공간을 제공한 점이 좋았다.', '삶을 담은 건축, 건축이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을 준다.', '건축가가 폄잡지 않고, 현실 여건에 맞춰 구현시킨 점이 돋보인다.' 등의 이유로 선정됐다. 이번 상은 월간 건축인 포아 2000년 3월호부터 12월까지 '크리아 선'에 소개된 10작품을 후보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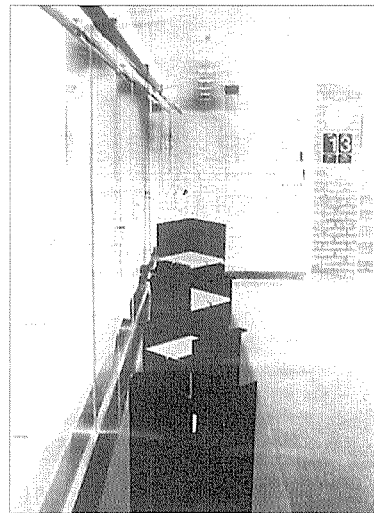
제4회 크리아어워드 수상작 / 기차길옆 공부방

으로 하여 진행됐다. 2위 득표작은 '멀티박스하우스' (정일교/초석건축사사무소)가 3위득표작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서혜림/힘마건축사사무소)가 차지했다. 추천 비평가는 함성호, 전진삼, 임석재, 이주연, 이종건, 이공희, 박민철, 김종현, 김정후(이상 9인, 포아비평가포럼)씨 등이었으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미술작가 안필연 교수에 의해 매년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 수여됨) 및 상장, 상금(당해년도 12월 기준 poar 정기구독자 구독료 총액의 1%에 해당되는 상금 지급)을 받는다. 시상은 3월 17일 포아 회의실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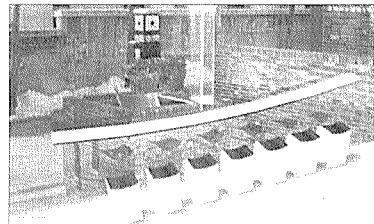
후보작은 임거당(김효만/이로재 김효만 건축연구소), 신도리코 본사 및 서울공장(민현식/기오현 건축), 부산 광복기념관(정연근/토원건축), 한빛고등학교(조건영/기산건축), 기차길옆 공부방(이일훈/설계집단 후리), 효성원(김동원/스튜디오 ZT), 목감성당(김태우/아리건축),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서혜림/힘마건축), 안성 풀하우스(김낙중/건국대 건축대학원), 멀티박스 하우스(정일교/초석건축) 등이었다.

### 제2회 포아가구디자인 공모전

월간 건축인 포아 주최



'Two Faces of Space', 이미정



'관계·흐름·그리고 비움', 김일억

월간 건축인 poar(발행인 김철환)와 (주)유오스(대표 최원영)가 공동 주최하고 건축발전연구소(소장 전진삼)가 주관하는 제 2회 포아 가구디자인공모전의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공간사옥(김수근 작)내 지정 장소에 놓여질 가구"를 주제로 이번 2회부터는 특정한 장소를 전제로 그 공간에 놓여질 가구디자인을 공모하여 그 첫 대상지로 20세기 한국현대건축의 최고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수근의 원서동 공간사옥 카운터층의 세 곳을 선정했으며, 응모자는 세 곳 가운데 한 곳을 임의 선정하여 디자인 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입상작은 'TWO FACE OF SPACE - 이미정(인그룹 건축설계사무소)와 '관계·흐름·그

리고 비움 - 김일억(주. 우대기술단)  
2작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본  
심사는 오섭훈·서해천(공간연구소  
소장)씨가 맡았으며, 기술심사는 최원  
영(UOS 대표)씨와 전진삼(건축발전  
연구소 소장)씨가 맡았다.

## 제9회 포아건축문학상 발표

월간 건축인 포아 주최

〈포아건축문학상〉의 아홉 번째 수상자  
가 결정됐다. 매년 봄, 가을에 걸쳐 연  
2회 시행해오고 있는 〈포아건축문학상  
〉은 그간 건축인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  
입어 그 참여와 내용면에서 꾸준히 성  
장해오고 있다. 수상자는 '유년(幼年)  
의 골목에서 시작하세요'를 출품한 김  
립(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씨가 선정  
됐다. 수상작은 비교적 재미있는 글 구  
성력이 돋보였으며, 주제의식이 뚜렷  
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26일 작품을 마감하여 2월 15일  
총 8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  
다. 심사는 이두열(이두열 건축계획연  
구소 소장)씨와 전진삼(건축발전연구  
소 소장)씨가 맡았다.

## 2001아시아「듀폰앤티트론디 자인 어워드」

4개 부문 시상, 오는 8월 발표



올 해로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를 맞  
는 이 어워드 프로그램은 듀폰의 앤티  
트론 카페트 원사를 활용한 우수한 상업  
용 건축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상하  
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와 유사한 프로  
그램은 미국, 호주 등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수상자들은 총 13,000달러에  
이르는 상금을 받게 된다. 각 부문별  
입상자들에게는 각각 2,000달러의 상  
금이 수여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상은  
4개부문에 걸쳐 선정, 시상한다. ▷서  
비스업(호텔과 모텔, 헬스클럽, 레스  
토랑, 카지노 등) ▷의료시설(병원과  
간호시설, 클리닉, 노인거주시설 등)  
▷기업 및 사무실(은행, 법률사무소,  
기업체사무실 등) ▷공공장소(공항,  
교육기관, 박물관, 극장, 도서관 등) 응  
모방법은 앤티트론 카페트가 설치된 곳  
의 컬러사진 또는 슬라이드와 함께 공  
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설치장소

는 1997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사이에 시공된 상업용 인테리어  
프로젝트이다. 문의: 02-2222-5237  
www.dupontantron.com

## 태양광발전을 적용한 환경 디자인 공모전

태양광발전과 환경디자인의  
조화를 주제로

제12회 태양광발전 국제회의의 조직위  
원회는 제12회 태양광발전 국제회의  
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전국의 대학(2  
년제포함) 관련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의 교육, 홍보  
와 보급촉진을 위한 환경디자인 공모  
전을 개최한다. 응모분야는 태양광발  
전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및 조형물  
또는 구조물의 설계이며, 오는 5월 5  
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http://solarpv.or.kr/pvsec-12/design>)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다. 마감은 오는 5월 25일까지이  
며, 작품접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팀(대전시 유성구 장동  
71-2)으로 하면 된다. 수상작 전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 롯데  
호텔 전시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 제6회 건축사진강좌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사진강좌가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 주관으로 2001년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1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관련 실무자들과 건축을 전공하는 이들에게 건축과 사진의 관계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디지털카메라의 이용부터 고건축, 현대건축, 모형촬영, 흑백작업까지 실제응용을 목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손수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이번 강좌는 임정의선생이 직접 강의하며 함께 실습지도한다

-기간: 2001년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7시부터 8시 30분

-장소: 청암건축사진연구소

-참가자격: 건축사진에 관심있는 사람

-참가인원: 12명 선착순

-참가비: 30만원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문의: 이메일 imfoto@hanmail.net  
이나 전화 011-706-5807

-강좌내용

1 강좌/ 건축을 보는 눈 (건축사진의 이해)

2 강좌/ 건축사진과 관련된 기자의 선택

3 강좌/ 빛의 이해 (자연광과 인공광)

4 강좌/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5 강좌/ 현대건축을 촬영실습

6 강좌/ 디지털카메라의 이용

7 강좌/ 고건축답사촬영(1박2일)

8 강좌/ 표현기법

9 강좌/ 모형촬영실습

10강좌/ 흑백현상실습

11강좌/ 흑백인화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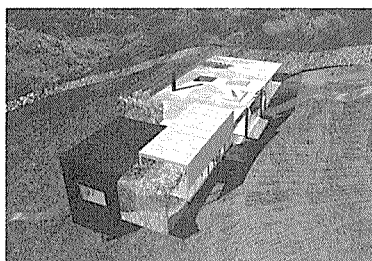
12강좌/ 포트폴리오 제작 및 총평

\* 현대건축촬영과 고건축답사 장소는 추후 결정

### 조 슬레이드 아키텍처

미, 「Architectural Record」誌 선정 10대 촉망받는 젊은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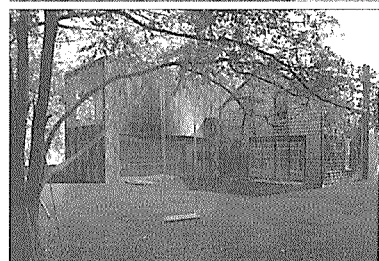
서울 출신의 조민석(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과 미국 캘리포니아 남미(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성장한 제임스 슬레이드(코넬대 서반어어문학과 졸업)는 1989년 미국 뉴욕시 3년과정의 콜롬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만나 함께 수학하고, 졸업 후 Polshek and Partners에서 함께 근무했다. 또한 조민석은 뉴욕시의 Kolatan and MacDonald Studio와 네델란드 로테르담(Rotterdam)의 렘 쿨하아스(Rem Koolhaas) 사무실에서, 제임스 슬레이드(James Slade)는 뉴욕시의 Richard Gluckman, Hanrahan & Meyers 그리고 영국 런던의 Rick Mather 사무실에서 각기 미주, 유럽, 아시아 등지의 건축과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실무 경력을 쌓았다. 또한 이 기간 조민석은 일본 「신건축」誌에서 매년 주관하는 '국제주택현상설계공모전' (1994, 후미히코 마키 심사위원)에서 1등 수상을



일랑주택

하기도 했다.

1998년 6월 뉴욕에서 조 슬레이드 아키텍처(Cho Slade Architecture)를 설립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은 '1999 Progressive Architecture Award'의 Citation과 Architectural League of New York에서 주관한 '2000 Young Architect Award'를 수상하였고, 최근에는 Architectural Record誌(2000. 12월호)의 'A New Vanguard' 이슈의 10개의 촉망받는 젊은 사무실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태국의 방콕, 미국의 뉴욕, 브룩클린에서 전시회를 통해서도 소개가 되었고, 최근 뉴욕시의 스위스문화원에서 Conceptual Artist 인 Renee Green이 기획한 'Platform' 시리즈에 참여했다. 제임스 슬레이드는 뉴욕의 Pratt Institute에서 방문교수로 재직중이고, 조민석은 서울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1999년 가을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폰 알라크 주택 증축안, 일랑주택, 윌리엄스주택 증축안, 울드주택 증축안, 파주아시아출판문화센터(Team Bahn과의 공동작, 현상 설계응모작, 기작수상) 등이 있다.



폰알라크 주택